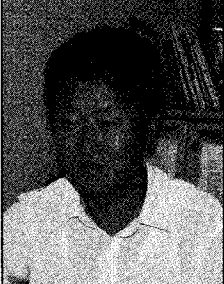




인드라망의 세계

인드라망이란 만물이 모두 상관관계를 갖고 연결돼 있다는 세계관



과 변 찬 -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아빠, 아빠” 음료수를 마시며 신문을 뒤적이던 아들이 나를 혼든다. 좀처럼 궁금한 게 없는 아들놈의 그런 모습이 엉뚱했다.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란 게 수준 이하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왜 물이 없다는 거야?”

아마도, 강릉 동해 속초 물난리 현장을 전하는 신문보도 가운데 ‘마실 물조차 없다’는 기사 제목만 보며 물어본 것이리라. 저리고도 중학교 2학년이라니, 쫓쫓.

“로빈슨 크루소 읽어봤지.” “아빠 난 어떻게 보는 거야” “좋다. 그러면 크루소가 표류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지 뭐.”

“천지가 물인데 왜 물이 필요했을까.”

“개가 빠진 곳은 바닷물이잖아.”

“그럼 저 흙탕물과 바닷물이 뭐가 다르지.”

“...그래도 강원도 물은 생수 보다 좋다고 하잖아. 흙투성이 개천이야 그렇다 해도 조금 산속으로 들어가면 깨끗한 물 구할 수 있잖아.”

“넌 설악산 계곡물도 잘 안 마시던데.”

“에이, 그땐 그 때고.”

“그리고, 저 많은 사람이 계곡으로 올라가 보라. 또 마시기만 하나.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너처럼 매일 벗어 던지는 옷도 빨자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냐. 넌 오줌만 누고도...”

“아 됐어. 그만해. 또 시작하시네.”

그래 난 시작하고 있었다. 기왕 시작했으니 그동안 체면을 생각해 짐작은 척, 꺾꺾 참았던 말들을 꺼내야겠다.

“게다가 넌 오줌만 누고도 양변기 물을 짹짹 쏟아내는데, 그 사람들은 대

소변을 무엇으로 치울까. 넌 매일 샤워하면서 욕조 한 가득 물을 쓰고, 땀만 슬쩍 닦아낸 그 물들을 모두 하수구로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저 땀과 흙투성이의 몸을 닦아내겠느냐.”

아들은 꿈무늬를 뺏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잔소리였다. 그동안 우리는 물 소비에 관한 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다. 샤워한 물은 반드시 욕조에 받아뒀다가 소변 씻어 내리는데 쓴다, 쌀 씻은 물은 모아뒀다가 설거지 때 세제 대용으로 쓴다, 등이 그것이다. 네 식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긴 하지만, 겨우 이 정도의 약속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 잔소리가 늘 수밖에 없었고, 입이 근질거리던 터에 아들이 멍석을 깔아준 셈이었다.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놈아.” 달아나는 아들놈을 붙잡아 앉혔다.

“아빠, 우리가 서울에서 물 아낀다고 강원도 수재민들에게 깨끗한 물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럴듯한 반론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지겨운 설교를 자초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보자. 수도물을 만들려면 전기와 각종 화학약품이 필요하다. 전기를 만들려면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가 필요하고, 이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온난화는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기상이변은 자연재해로 이어진다... 아들은 온몸을 비튼다. 불쌍하지만 자초한 일.

초유의 물난리 앞에서 사람들은 천재냐 인재냐를 따진다. 결론이 어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정부, 자치단체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그들만의 잘못일까.

카오스이론에선, 북경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자 지구 반대편 뉴욕에 폭풍이 불더라라는 말이 있다. 우리 집에서 허투루 버린 수도물 한 방울이 강원도에 폭우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함께 생각해보자. **EPFK**

